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새해 도정 운영 방향 '천년 먹거리 육성 통한 산업혁명'

전북도 "친환경 스마트화, 산업의 새 정체성 정착시킬 것" 이상회복 최우선 등 9대 역점시책 · 11대 프로젝트 선정

전북도가 2022년 새해 도정 운영 방향으로 '백년 · 천년 먹거리 육성을 통한 전북도 산업혁명'을 내걸고 '친환경과 스마트화'를 전북도 산업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 조선 · 기계 · 농생명 등 기존 주력산업의 혁신과 탄소 · 수소 ·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선점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전북이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는 9대 역점시책과 11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해 일상회복과 민생안정, 산업지도 재편을 이뤄 생태문명의 시대를 선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 16면>

이를 위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맞아도 끝까지 굳세게 참아내어 목표를 달성한다'는 '견인불발(堅忍不拔)'의 자세로 모든 공직자가 강한 의지와 흔들림 없는 실천으로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송하진 지사는 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구상을 담은 2022년 도정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송 지사는 먼저, 지난해 성과와 관련해 "코로나19 상황에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출범과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전국 최초 스마트팜 혁신밸리 준공과 함께, 선도적 농민공익수당 대상을 양봉농가와 어민까지 확대했고, 국가예산 9조원 시대 눈앞, 2020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전국 2위 달성 등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이어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빅 이벤트가 예정돼 있고, 심략농정 농생명 산업 등 5대 도정 핵심 사업을 완성도 있게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도정 운영은 일관된 흐름과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안정적 도정 운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꾸준히 노력해 온 산업체질 개선과 산업생태계 혁신을 통해 백년 · 천년 먹거리를 확보하면서 산업지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를 전북도 산업혁명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했다. 이어 "이제



송하진 도지사(사진 왼쪽에서 두번째)가 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새해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는 친환경 스마트화를 전북도 산업의 정체성으로 정착시켜 산업혁명을 이루는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송 지사는 "시대의 흐름인 친환경과 스마트화를 산업에 접목해 자동차와 조선 기계 등 기존의 주력산업은 혁신을 이루고, 탄소와 수소, 재생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산업은 빠르게 선점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친환경과 스마트화를 통한 산업 체질이 강화되고, 생태계가 완벽히 구축될 때 백년 · 천년 먹거리

의 토대를 확실히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북도 산업혁명이 상대적 낙후와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송 지사는 "친환경과 스마트화라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혁신과 선점을 통해 따라갈 때 매년 꼴찌와 매년 최하위라는 상대적 낙후를 벗어날 수 있다"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새로운 산업이 있는 결코 남부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고장에서 살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아울러 송 지사는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와 백신접종 및 추가 접종 등 일상회복을 위한 도민 동참을 호소하며, 방역과 위기 극복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송 지사는 "위기에도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고 극복해 변화를 선도할 때 생태문명의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도는 백년 · 천년 먹거리 육성을 통한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9대 도정 역점시책과 11대 핵심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올 한 해 성과 창출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9대 역점시책으로 ▲일상회복 최우선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과 청정전북 실현, ▲혁신과 선점으로 산업생태계 새롭게 구축, ▲심략농정과 농생명산업 선도, ▲친환경 스마트형 새민생개발, ▲일자리 창출 · 투자 촉진 · 중소기업 육성 민생경제 활력화, ▲자존의 역사 · 문화와 여행 · 체험 · 관광 1번지, ▲충족한 복지체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따뜻한 전북, ▲인구감소 대응, 청년활성화, 균형발전 추진을 제시했다.

11대 핵심 프로젝트에는 ▲그린수소와 재생에너지산업 기반 확대, ▲탄소산업 상용화 생태계 활성화, ▲친환경 · 미래차 생산거점 및 상용차 산업 생태계 강화, ▲탄소중립 실현 선도와 지역맞춤형 유휴환경 개선, ▲아시아 스마트농생명밸리 구축 본격화, ▲생태문명시대, 청정 · 안전 전북여행 콘텐츠 강화, ▲코로나19 대응 일상과 민생활력 회복, ▲새민생 Tri-part 구축과 내부개발 촉진, ▲금융산업 기반 조성 및 금융생태계 구축, ▲생활의 과학화와 보건 의료 공공성 강화, ▲새민생밸리와 이태미스터스대회 체계적 준비를 선정했다. /유호상 기자

### “도내 전통시장서 화재 발생 않도록 최선”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 취임 첫날 전주 남부시장 현장 행보

최민철 전북도 소방본부 제18대 소방본부장이 5일 취임 첫 공식일정으로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도민안전을 우선 챙기며, 현장형 지휘관으로서 행보를 시작했다.

설명질 대비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현장행정은 최근 서울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화재(21.12.19.) 발생 관련 겨울철 전통시장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취약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날 최 소방본부장은 전주인산소

방서의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추진 상황 검토 후, 상인회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위해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시장 관계자와 전통시장 내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 육내소화전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며, 상시 소방시설 점검 및 관리방법 등 노하우를 지도하는 등 실무에도 능통한 모습을 보였다.

최민철 전북도 소방본부장은 “전



통시장은 많은 점포가 좁은 공간에 밀집돼 있어 화재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상인회 및 안전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도내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18대 전북소방본부장으로 취임한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전주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4회 사법고시에 합격한 후 2005년 소방령 경력채용으로 소방에 입문했다.

이후 국민안전처119생활안전과장, 소방청119구조과장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장, 경기도 소방학교장 등을 역임, 재난현장과 소방정책분야를 두루 경험한 실무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풍부한 현장경험과 탁월한 지휘력으로 직원들 사이에 신뢰가 두터워, 적극적으로 합리적인 행정역량을 두루 갖췄다는 평도 듣고 있다. /유호상 기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구축

전주시, 공공기관 20곳 50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하면 경고음이 울리고 차량이동 없이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단속시스템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동 주민센터와 도서관 등 공공기관 20곳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50면에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3개월간의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사물인터넷 기술과 CCTV에 기반한 무인 단속시스템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이 해당 주차구역에 진입하면 IoT(사물인터넷) 센서



를 통해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경고방송을 송출하고 붉은색 경고등을 작동하는 체계로 운전자에게 불법주차 행위임을 알려주는 효과가 있다. 최초 입차 시 1차, 1분 경과 시 2차 경고가 작동되며, 2차 경고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김윤상 기자

장수군

2022년 임인년

희망찬 새해 되십시오! 福

근고지영(根固枝榮)의 마음으로  
풍요로운 미래의 땅, 힘찬장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